

물 좋은 예천



오근식
건국대학교병원 홍보과장

예천을 배산임수의 명당 터라고 말합니다. 그 지명도 물이 달다는 뜻의 예(醴) 자와 샘을 뜻하는 천(泉)으로 이루어 졌으니 논과 밭에 기대어 살던 과거의 풍족한 삶을 상상해 봅니다. 북쪽으로 소백산 월악산 그리고 속리산으로 이어지는 우람한 산줄기 남쪽에 예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 회룡포 : 평탄하게 흐르던 내성천이 예천을 빠져나가 낙동강에 흡수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힘을 쓰며 마치 용이 꿈틀하는 물길을 만들어 냈다.





▲삼강주막 부역의 외상장부 : 삼강주막의 부역엔 글을 몰랐던 주모 할머니의 외상장부가 있다. 아궁이의 그을음으로 까매진 흙벽에 줄을 뺏사공을 비롯해 단골손님들의 외상을 표시해 두었다.

▲삼강주막 : 강에 버금가는 예천의 내성천과 금천이 만나 낙동강에 흡수되는 곳에 삼강주막이 있다. 한 때 강을 건너려는 상인들이 북적거리던 이 주막은 2006년 우리나라의 마지막 주모인 유옥연 할머니가 세상을 뜬 후 지금은 예천의 대표적 관광지가 되었다.

예천 남쪽에서는 북동쪽의 봉화에서 흘러오는 내성천이 서쪽을 향해 흐르며 북쪽의 수많은 산골짜기에서부터 눈과 밭은 적시며 내려오는 크고 작은 물줄기를 받아냅니다. 낙동강 그 아래에서 나란히 흐르다가 내성천을 받아들이고 다시 문경에서 흘러내려오는 영강을 흡수해 남쪽으로 흘러나갑니다.

크고 작은 작은 물길엔 곳곳에 정자가 있고 마을마다 서원 또는 서당이 있으며 내세울만한 양반 가문의 고택 한 채쯤은 있으니 어딜 가든 예천에서 옛 사람을 만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내성천이 마지막으로 힘을 쓰며 돌아 흐르는 곳엔 곧 끊어질 듯 겨우 내륙의 섬 신세를 모면한 회룡포 마을이 있습니다. 이 회룡포를 바라보는 전망은 영월의 한반도면 전망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마지막 주모 할머니가 남겨놓은 삼강주막엔 아직도 할머니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땅을 가진 나무가 두 그루나 있는 특별한 고장이 예천입니다.

예천에는 조금 억지스러운 이유로 갔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삼수정(三樹亭)의 현판 글씨를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가운데 글자인 나무 수(樹) 자를 보니 앞뒤로 나무목이 들어 있습니다. 낙동강이 안동을 빠져나와 내성천과 합치기 전 잠시 예천을 통과하는데 삼수정은 이 강 남쪽의 아주 작은 언덕에서 북쪽을 향해 서 있습니다.

삼수정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이차선 도로를 벗어나면 마주 오는 차를 비켜줄 여유가 전혀 없는 좁은 농로를 지나야 하고 이 길 끝에서 차를 돌려나올 수는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될 즈음 삼수정 앞의 낙동강 독길에 오르면 거기 삼수정이 있습니다.

이 정자의 주인 삼수 정귀령은 고려 말에 태어나 조선의 세종 때에 지금의 결성(지금의 홍성) 현감을 지낸 후 이곳에 들어와 터를 잡았습니다. 그는 이 언덕에 정자를 짓고 회화나무 세 그루를 심었

습니다. 정자 이름도 삼수정이라 짓고 삼수를 그
의 호로 삼았습니다.

회화나무는 학자 또는 벼슬을 상징하는 나무입니
다. 삼수정 앞에 회화나무 세 그루를 심은 이유는
중국 송나라 초기의 선비 왕호에서 기원합니다.
강직했던 왕호는 재상 지명에서 탈락하고 집 마당
에 회화나무 세 그루를 심었습니다. 후에 그의 아
들이 명재상으로 이름을 날렸고 손자, 증손자까지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삼수의 후손 중에도 정승 지위에 오른 사람이 13

명이었다고 하니 회화나무의 효험이 있었나봄니
다. 아직 삼수정에는 회화나무 거목이 한 그루 남
아 다만 훌륭한 자손을 가르치고자 했던 삼수 정
귀령 선생의 굳센 의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삼수정에서 멀리 않은 곳에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
진 삼강주막과 회룡포가 있지만 잠시 뒤로 미루고
찾아간 곳이 황목근(黃木根)입니다. 예천 남서쪽
용궁면 금남리 금원마을의 너른 들 한가운데에 자
리 한 황목근은 석송령보다 두 배쯤 넓은 땅을 가
지고 있습니다.



◀ 삼수정 현판 : 나무 목 (木)자 들을 사용한 삼수정
현판.

▼ 삼수정 : 북쪽의 낙동강을 바라보며 언덕에 자리 잡은
삼수정과 그 앞의 우람한 회화나무. 후대에 심은
소나무 고목 세 그루가 운치를 더해주고 있었는데
치근 한 그루가 고사했다.



황목근을 찾아가는 길도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차선 도로를 벗어나 논 한복판으로 가다보면 찾아오는 이들을 위한 넓은 주차장까지 갖춘 부자나무가 있습니다. 황목근은 수령 500년으로 추정되는 팽나무인데 근처엔 뒤를 이을 후계목이 씩씩하게 자라고 있고 나무 그늘 안엔 제단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황목근은 금원마을을 지켜주는 수호목이자 당산목입니다.

1939년 마을 사람들이 쌀을 모아 마련한 마을의 공동 재산인 토지를 이 팽나무 앞으로 등기 이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정월 대보름 자정에 제관과 축관을 선정해 당제를 올린 뒤 다음날에는 나무 아래 함께 모여 잔치를 열고, 7월 백중날에도 마을 전 주민이 모여 잔치를 벌이며 농사로 지친 심신의 피로를 푼다고 합니다.

예천의 북동쪽 영주와 가까운 감천면 천향리 석평마을의 석송령은 오래 전부터 널리 알려진 땅을 가진 소나무입니다. 석송령이 땅을 가지게 된 사연은 황목근과는 조금 다릅니다. 후사가 없던 이수목이라는 노인이 1920년에 자신의 전 재산을 이 마을 입구의 소나무에게 상속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죽은 후에 무덤을 돌보고 제사를 지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주민들은 그 뜻에 따라 이 소나무를 '석평동의 영험 있는 소나무'란 뜻으로 석송령(石松靈)이라 이름하고 나무와 노인의 무덤을 돌보아 왔습니다. 해마다 정월 대보름에는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동제를 이 나무 앞에서 지내며 그간 마련된 기금으로 장학 사업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 금원마을의 수호목이자 당산목인 황목근



▲ 석평동의 영험한 소나무 석송령